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명계’ 송갑석

이재명 ‘통합·탕평’ 인적 쇄신
송 “그런 건 그르다고 말할 것”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두루 중용
사무총장 유임엔 ‘반쪽 인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명’ (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을 임명하는 등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깊어진 당 내홍을 추스르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꺼낸 ‘인적 쇄신안’

이다. 송 의원은 최근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 등을 통해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내온 대표적 비명계 의원으로 당 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다.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그렇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삼겠다.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도 마다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당의 통합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과감하고 용기있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오직 민심에 따라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 말하겠다”면서 “승리하는 민

주당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임명됐다. 아울러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은 재선의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맡았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부수석과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제3사무부총장인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조선의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임명됐다. 대변인단도 개편됐다. 안호영 수석대변인, 김의겸·임오경 대변인이 물러나고 기존 대변인단 중에는 박성준·한민수 대변인만 유임됐다. 신임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권철승 의원(경

기 화성병)이 임명됐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안정, 통합, 탕평이라는 의미를 담은 인선”이라며 “이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번 당직 개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대규모 이탈표’ 사태로 불거진 내용에 따른 수습책의 일환이다. 앞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더미래) 등은 이 대표에게 전면적 인적쇄신 등을 수습책으로 요구해왔다. 이 대표는 통합과 탕평을 최우선에 두고 당직 인선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인선 결과를 두고도 당내 계파를 두루 아울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와 가까운 ‘SK계’ 인사로 분류돼왔다. 한병도 의원과 권철승 의원은 ‘친문’ (친문재인)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정책 포럼인 ‘사의재’에도 몸담고 있다.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이번 인선으로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문진석·김남국 의원이 모두 교체됐다. 친명계로 분류됐던 김성환 의원 역시 정책위의장에서 물러났다. 다만, 공천 실무를 담당할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되면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 당직 개편의 핵심으로 내년 총선 실무를 담당할 사무총장의 교체를 꼽아왔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당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데 조 의원의 평이 좋다”며 “5선으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 화합을 이룰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바람직한 한일 관계란? 27일 오전 중구 서울클럽에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 윤봉길 의사 손녀 유주경 국회의원, 신각수·최상용 전 주일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한일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조찬 모임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정책위-용산 국정기획 ‘핫라인’ 가동

윤 대통령, 당정 긴밀협의 지시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당정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이 가동된다. 정부가 정책 구상 단계부터 당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 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시도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이도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도 했다. 이날 박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는 것과 맞물려 당과 대통령실 간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전망이다. 사실상 정책실장 역할을 맡아온 이 수석은 박 의장의 카운터파트로서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수석실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잘 못 설계되고 홍보되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을 경험했다고 보고, 제대로 된 정책 마케팅을 주문해왔다. 정책을 발굴할 때부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수용성을 높이고 성과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당정 간 소통 채널 활성화는 당이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를 복원하는 등 정책 기능을 보강하는 것과 일치하는 흐름이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천명해야”

이재명, 근로시간 개편 등 맹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사능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일본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정부의 졸속적 노동 개악 시도에 국민 분노가 거세다”며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 가

야 한다.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당 69시간제는 무능한 국정부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만 5세 초등 입학제도, 자살 예방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대책으로 암소 도축, 30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등 그간 발표한 정책마다 설이고 부실한 것들뿐이다. 국민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분기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길 바란다.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화이트리스트, 일 조치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27일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일본 측 최신 움직임이나 우리측 입장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8월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한국 정부도 이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과 맞물린 양국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일본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금명간 발표할 올해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강제징용과 독도 등의 기술이 기존보다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연합뉴스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속모델 강석우 내연신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겐코콜,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아연(Zn), 셀레늄(Se)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 주문 치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플 트러스트 www.edaymail.com | 문의 | 고객센터 15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경기: 동북영점소 (03)952-4907 ● 북부영점소 (03)969-9382 ● 남부영점소 (03)261-4535 ● 관서영점소 (03)261-4535 ● 서부영점소 (03)261-4535 ● 남부영점소 (03)261-4535 ● 동부영점소 (03)261-4535 ● 서부영점소 (03)261-4535 ● 남부영점소 (03)261-4535 ● 동부영점소 (03)261-4535
● 충청영점소 (042)823-8801 ● 전북영점소 (063)244-5721 ● 전남영점소 (062)941-5001 ● 경북영점소 (053)559-3441 ● 경남영점소 (053)231-6508 ● 광주영점소 (061)471-4331 ● 부산영점소 (051)004-4501